

『삼국사기』 신라 인물 열전의 원전과 편찬

전 덕 재*

국문초록

본 논고는 『삼국사기』 신라 인물 열전의 원전과 찬술에 대해 살핀 것이다. 거도열전과 이사부열전 전체 혹은 일부 기록의 원전은 『鷄林雜傳』에 전하는 기록이었고, 百結先生列傳의 원전은 『樂本』에 전하는 기록 또는 이에 기초하여 새로 정리한 전승자료였다고 보인다. 上古期の 인물인 昔于老·勿稽子·朴堤上列傳의 원전은 『國史』의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와 계통이 다른 별도의 전승자료였다. 사다함과 관창, 김흠운열전의 원전은 『花郎世記』, 비녕자열전의 원전은 金庾信行錄에 전하는 기록이었으며, 이외의 중고기 신라 인물의 열전은 각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였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중고기 인물의 열전이나 이들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축약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添入하였음에 반하여, 열전의 찬자는 열전을 찬술할 때에 신라본기에 전하는 기록을 적극 참조하지 않았다.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는 설총열전은 金大問의 『鷄林雜傳』, 설총과 그의 아들 薛仲業 관련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찬술하였고, 최치원열전을 찬술할 때에 국내의 최치원 관련 전승자료와 上太師侍中狀, 『新唐書』 藝文志 등에 전하는 최치원 관련 기록을 두루 참조하였다. 張保臯列傳은 杜牧의 『樊川文集』에 전하는 張保臯鄭年傳을 주요 저본으로 삼고, 『신당서』 신라전에 전하는 장보고 관련 기록을 참조하여 찬술하였다. 이밖에 강수를 비롯한 나머지 중·하대 인물 열전의 원전은 개별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였는데, 이 가운데 김인문과 김양열전의 원전은 行狀의 성격을 지닌 전승자료였음이 주목된다.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는 중·하대 인물의 열전이나 이들 원전의 기록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 신라본기를 찬술하였고, 비록 신라본기에 어떤 인물의 행적이 전하더라도 신라본기의 기록을 저본으로 삼아 그를 열전에 入傳하지 않았다.

[주제어] 계림잡전, 화랑세기, 원전,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 신라본기, 『삼국사기』 신라 인물의 열전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설총·최치원·장보고열전의 원전과 찬술 |
| II. 상·중고기 인물 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 V. 맺음말 |
| III. 중·하대 인물 열전의 원전과 찬술 | |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ms8794@chollian.net; dj8794@dankook.ac.kr

I. 머리말

『삼국사기』 열전은 10권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김유신열전이 3권(41~43권)을 차지하고, 나머지 7권에 50명을 立傳하였다. 대체로 44권에는 名將 9명, 45권에는 賢相·忠臣 10명, 46권에는 儒學者 3명(強首·薛聰·崔致遠), 47권에는 殉國烈士 13명, 48권에는 孝行·烈女·隱逸·名人 11명, 49권에는 왕을 시해한 逆臣 2명(倉助利·蓋蘇文), 50권에는 신라국가를 배반하고 독립적으로 나라를 세운 叛逆(弓裔·甄萱) 2명을 배치하였다. 이밖에 김유신열전에 元述과 允中, 金巖을 附記하여 立傳하였고, 또한 金仁問列傳에 良圖, 裂起列傳에 仇近, 薛聰列傳에 崔承祐·崔彦僞·金大問, 金生列傳에 姚克一, 蓋蘇文列傳에 男生·獻誠을 附記하여 立傳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전에 立傳된 인물 가운데 고구려인이 8명(乙支文德·乙巴素·密友·紐由·明臨答夫·溫達·倉助利·蓋蘇文), 백제인이 3명(黑齒常之·階伯·都彌)이고, 나머지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인이 40명을 차지한다. 이밖에 부기한 인물 가운데 남생과 현성만이 고구려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라인이다. 삼국 가운데 신라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백제인인 계백과 도미는 古記라고 불리는 백제 자체의 전승자료, 흑치상지는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을 활용하여 立傳하였다. 고구려인의 경우는 주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을 활용하여 立傳하였고, 다만 온달의 경우에만 古記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여 傳記를 구성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에 반해 신라 인물 가운데 신라본기를 활용하여 立傳한 경우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장보고와 최치원을 제외하고 중국측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적극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 대체로 김유신행록이나 『花郎世記』와 같은 문헌이나 각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전기를 찬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기존에 『삼국사기』 찬자가 열전을 찬술할 때에 활용한 저본자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핀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¹⁾ 이밖에 특정한 국가의 인물이나 개별 인물 열전에 활용된 저본자료에 대해 살핀 연구성과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²⁾ 기존의 연구에 힘입어 열전의 찬술에 활용한 저본자료에 대한 대강의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삼국사기』 본기와 『고려사』 태조세가,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과 열전에 전하는 기록을 치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본기 및 태조세가,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의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의 여부 및 개별 인물 열전의 찬술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考究한 연구성과를 거의 찾기 어렵다. 더구나 『삼국사기』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김유신행록 또는 김대문의 여러 저술, 그리고 古記類의 성격을 규명한 다음, 이와 같은 작업을 기초로 하여 개별 인물 열전의 원전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본고는 바로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1) 『삼국사기』 열전을 찬술하는 데에 활용한 저본자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성과로서 황형주, 「『삼국사기』 열전」 찬술과정의 연구-자료적 원천의 탐색-,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강래, 「『삼국사기』 열전의 자료계통」, 『한국고대사 연구』 42, 2006; 『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2007 등을 들 수 있다.

2) 이흥직, 「삼국사기 고구려인전의 검토」,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高寬敏, 「『三國史記』の一原典としての『金庾信行錄』」,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 1996; 윤재운, 「『삼국사기』 장보고열전에 보이는 장보고상」, 『신라문화학회 학술논문집』 25, 2004; 김복순, 「신라의 유학자-『삼국사기』 유학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학회 학술논문집』 25, 2004. 이밖에도 개별 인물 열전의 저본자료에 대해 검토한 논고가 다수 발표되었으나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명하지 않았다.

김유신열전과 고구려·백제 인물 열전 및 궁예·견훤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통해 살필 예정이고, 본고에서는 신라 인물 열전의 원전과 찬술을 고찰하는 데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김유신과 궁예·견훤을 제외하고 열전에 입전된 신라 인물은 모두 37명이다. 신라 인물 열전에 전하는 기록을 이와 관계가 깊은 신라 본기의 기록과 비교 검토한 결과, 상고기와 중고기, 중·하대 인물 열전의 기록이 각기 나름의 특징적인 면모를 지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고기와 중고기, 중·하대 인물로 분류한 다음, 시기에 따라 열전의 원전과 찬술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가를 규명하는 순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상고기와 중고기 인물 열전을 분석하여, 상고기 인물 열전의 원전은 『國史』의 찬자가 활용한 전거자료와 별도의 전승자료에 전하는 기록이었고, 개별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계통의 전승자료가 고려 시대까지 전해졌음을 규명한 다음, 이어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할 때에 중고기 인물 열전이나 그것의 원전을 적극 참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전의 찬자가 개별 인물 열전을 찬술할 때에 『화랑세기』와 김유신행록 및 개인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를 활용하였음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III장과 IV장에서는 중·하대 인물 열전의 원전과 찬술에 대해 살필 예정인데, 여기서는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이하 『삼국사기』 찬자로 기술)가 열전을 찬술할 때에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으로 추정되는 『구삼국사』 신라 기록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 김대문의 『花郎世記』와 『鷄林雜傳』 및 개별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를 적극 참조하였다는 사실, 최치원과 장보고열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였다는 점, 『삼국사기』 찬자가 직접 補入한 내용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본고의 부족한 점은 추후에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많은 질정을 바란다.

II. 상·중고기 인물 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1. 상고기 인물 열전의 원전과 성격

『삼국사기』 열전에 立傳된 신라 上古期의 인물은 居道, 昔于老, 勿稽子, 朴堤上, 百結先生 등이다. 백결선생열전의 내용은 백결선생이 碓樂을 지은 유래를 설명한 것이다. 열전에는 선생이 대악을 지은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삼국사기』 잡지제1 樂 新羅樂條에서 선생이 자비왕 때에 그것을 지었다고 하였다. 현재 열전의 원전을 정확하게 考究하기 어렵다. 다만 金大問이 『樂本』을 찬술하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백결선생열전의 원전이거나 또는 『악본』의 기록을 기본원전으로 하는 古記가 백결선생열전의 원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居道에 관한 정보는 열전 이외에 다른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거도열전과 관련된 것이 바로 異斯夫列傳이다. 여기에 (異斯夫가) 智度路王 때 沿邊官이 되었는데, 居道の 匹(居道權謀)를 踏襲하여 馬戲로 加耶(또는 加羅라고도 하였다)를 속여 취하였다.'고 전한다. 거도가 脫解尼師今代에 邊官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사부가 沿邊官이 되었다고 언급한 것과 相通한다. 게다가 둘 다 서로 馬戲를 활용하여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여 취하였다는 사실도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측면을 두루 감안한다면, 居道가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을 병합한 사실과 이사부가 가야를 취한 사실은 본래 하나의 전승자료에 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한다. 이 전승자료와 관련하여 지증왕을 智度路王이라고 표기한 점이 유의된다.

신라본기에 지증왕의 이름은 智大路이고, 細注에서 智大路는 智度路 혹은 智哲老라고도 하였다고 전한다. 이사부열전에서 王諱를 이용한 왕명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잡지제1 樂 新羅樂條에서 꾸리는 智大路王 때의 사람인 川上郁介子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 지증왕의 경우 王諱를 이용한 王名은 오직 이사부열전과 약지에만 보일 뿐이고, 다른 기록에서는 지증왕이라고 적기하였다. 신라악조의 원전이 김대문이 지은 『악본』에 전하는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³⁾ 『樂本』에 신라악조에 전하는 여러 노래의 명칭과 그 유래에 대한 내용이 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김대문이 『악본』에서 지증왕을 智大路王이라고 표기하였다고 이해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⁴⁾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이차돈의 순교 관련 기록을 金大問이 지은 『鷄林雜傳』에서 인용하여 신라본기에 침입하였는데, 여기에서 炤智麻立干을 毗處王이라고 표기하였다.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즉위년조의 細注에 炤智를 또는 毗處라고도 하였다고 전하는데, 이것과 이사부열전에서 세주에 전하는 지증왕의 諱를 사용하여 智度路王이라고 표기한 것이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악본』에서 지증왕을 王諱를 사용하여 智大路王이라고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鷄林雜傳』에서 소지마립간의 異名인 毗處王을 사용한 사실, 그리고 『계림잡전』이 여러 가지 잡다한 전승자료를 취합하여 기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사부열전에서 지증왕을 王諱를 사용하여 智度路王이라고 표기한 사실, 여기에도 거도열전에서 脫解尼師今 때에 벼슬에 나아가 干이 되었다고 전하여 석우로와 박제상열전에서 助賁, 沾解, 奈勿, 實聖을 모두 ‘~王’이라고 표기한 것과 대비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건대, 거도열전과 이사부가 가야를 취하였다는 기록의 원전은 『계림잡전』에 전하는 기록이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전혀 억측만은 아니지 않을까 한다.

이사부열전에는 이사부가 가야를 취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이사부의 于山國 정복과 道薩城·錦峴城 공략 기록이 함께 전한다.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6월 기록에는 우산국이 歸服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다가 불복하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고 전하고, 이사부열전에는 우산국을 병합하려고 계획하였다(謀并于山國)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다만 何瑟羅州를 阿瑟羅州라고 표기한 것 이외에 우산국 정복 기사는 두 자료에 전하는 것이 동일하다. 한편 진흥왕 11년(550)에 이사부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은 신라본기 진흥왕 11년 기록에 전하는 것과 이사부열전의 기록이 서로 차이가 있다.⁵⁾ 이

3) 『삼국사기』 잡지제1 樂 新羅樂條에 ‘德思內는 河西郡의 음악이고, 石南思內는 道同伐郡의 음악이다’라고 전한다. 잡지제3 지리1 양주조에 屈阿火縣을 경덕왕대에 河曲縣 또는 河西縣으로, 刀冬火縣을 경덕왕대에 道同縣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하므로, 신라악조의 원전은 적어도 경덕왕대 이후에 정리된 전승자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문은 성덕왕대에 활동하였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악본』 역시 지명을 漢式으로 개정한 경덕왕 16년(757) 이전에 찬술되었다고 짐작되므로 신라악조의 원전이 『악본』에 전하는 기록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이강래,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07, 288~289쪽.

5) 신라본기 진흥왕 11년 기록에는 이 해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 도살성을, 3월에 고구려가 백제 금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이사부가 두 성을 공략한 후에 甲士 1천 명을 머물러 지키게 하였다고 전함에 반하여 이사부열전에는 단지 진흥왕 11년에

에 따른다면,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은 이사부열전 또는 이것의 전거자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더구나 이사부가 지증왕 6년 2월에 悉直州軍主에 임명되었다는 사실, 진흥왕 2년 3월에 兵部令에 임명되어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은 사실, 진흥왕 6년 7월에 國史의 편찬을 건의한 사실, 진흥왕 23년 9월에 大加耶를 정벌한 사실에 대해 신라본기에만 전하고 이사부열전에는 전하지 않는다. 신라본기에 전하는 이와 같은 이사부의 행적이 이사부열전에 전하지 않은 이유는 『삼국사기』 찬자가 이사부열전을 찬술할 때 그들이 참조한 전거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하지 않았던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과 아울러 이사부가 가야를 취하였다라는 기록의 원전이 『계림잡전』에 전하는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사부열전 기록의 원전이 『계림잡전』에 전하는 기록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사부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공략하여 차지하였다는 기록의 원전이 『계림잡전』에 전하는 기록과 이것 이외의 이사부와 관련된 또 다른 전승자료에 전하는 기록이었을 가능성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비록 후자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산국 관련 기록의 원전은 『계림잡전』에 전하는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다만 우산국 관련 기록에 경덕왕대에 개정한 溟州라는 지명이 보이므로, 거기에 계림잡전 편찬 이후에 부회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신라본기에 실성이사금 원년(402) 3월에 나물왕의 아들 未斯欣을 왜에 볼모로 보냈고, 실성이사금 11년(412)에 나물왕의 아들 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으며, 눌지마립간 2년(418) 정월에 왕의 동생 卜好가 고구려에서 奈麻 堤上和 함께 돌아왔고, 가을에 왕의 동생 未斯欣이 왜에서 도망쳐 돌아왔다고 전한다. 이러한 내용은 박제상열전에도 동일하게 전하나, 다만 제상의 관등이 奈麻였다는 사실과 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건대,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이 박제상열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신라본기와 박제상열전 기록의 원전이 동일하였는데, 『삼국사기』 찬자가 그것을 참조하여 박제상열전을 찬술하면서 제상의 관등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月에 관한 정보를 생략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박제상열전에 敵良州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신라는 문무왕 5년(665)에 上州와 下州의 땅을 분할하여 삼량주를 설치하였다.⁶⁾ 따라서 박제상열전의 원전은 삼량주를 良州로 개칭하기 이전인 중대에 정리된 전승자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제상열전 말미에 ‘이전에 미사흔이 돌아올 때 6부에 명하여 멀리까지 나가 맞이하게 하였고, 만나게 되자 손을 잡고 서로 울었다. 마침내 형제들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마음껏 즐길 때 왕은 노래와 춤을 스스로 지어 자신의 뜻을 나타냈는데, 지금(고려) 향악의 憂息曲이 그것이다.’라고 전한다. 잡지제1 악 신라악조에 ‘憂息樂은 눌지왕 때 지은 것이다.’라고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악보』에 눌지왕이 우식악(우식곡)을 지은 유래를 설명한 내용이 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제상열전 말

백제와 고구려가 각기 도살성과 금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이사부가 두 성을 공격하여 빼앗은 후에 갑사에게 머물러 지키게 하였으며, 이후 다시 고구려가 금현성을 공격하자, 이사부가 이를 물리쳤다는 내용이 더 전하고 있다.

6)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敵良州. 神文王七年 築城 周一千二百六十步. 景德王改名良州 今梁州(『삼국사기』 잡지제3 지리1 양주).

미에 전하는 기록은 『약본』에 전하는 기록 또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정리한 전승자료에 전하는 기록이 원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2 奈勿王 金堤上條에 堤上의 姓이 金氏, 복호가 寶海, 미사흔이 美海로, 미해가 왜에 볼모로 간 시기가 那密王(奈勿王) 36년, 보해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시기가 눌지왕 3년(419)이라고 전하여 박제상열전에 전하는 기록과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서술 내용도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따라서 『삼국유사』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는 신라본기 및 박제상열전 기록의 원전과 별개의 계통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삼국유사』에서 제상을 歙羅郡 太守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덕왕대에 개정된 지명인 高城이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하건대, 一然이 참조한 전승자료는 박제상열전의 원전보다 훨씬 더 후대에 정리된 전승자료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신라본기에 석우로에 관해 나해이사금 14년 7월, 조분이사금 2년 7월, 4년 7월, 15년 정월, 16년 10월, 첨해이사금 3년 4월 기록에 전한다. 우로가 浦上八國의 난을 진압하였다는 내용을 기술한 나해이사금 14년 7월 기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석우로열전에 전하는 것인데, 표현 또는 기년상에서 약간의 편차를 발견할 수 있다.⁸⁾ 석우로열전에 첨해왕 때에 우로가 沙梁伐國을 정벌하였다고 전하나, 신라본기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들을 참조하건대, 신라본기 기록과 석우로열전의 원전은 달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신라본기 이사금시기 기록의 기본원전은 『國史』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⁹⁾ 『국사』의 찬자인 居柒夫 등이 참조한 석우로 관련 전승자료와 『삼국사기』 찬자가 석우로열전 찬술을 위해 참조한 전승자료는 계통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후자에서 甘文國을 토벌하고 그 땅을 郡縣으로 삼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주목한다면, 『삼국사기』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는 신라에서 縣制를 실시한 이후 시기, 즉 중대 또는 그 이후에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밖에 석우로열전에서 細注로 우로가 혹은 角干 水老의 아들이라고 전한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석우로와 관련된 또 다른 전승자료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석우로열전에서 우로의 행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는 우로의 주요 행적을 정리한 行狀의 성격을 지녔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¹⁰⁾

7) 『日本書紀』卷9 仲哀天皇(神功皇后 攝政前紀) 9년조에 新羅王 波沙寐錦이 微叱已知波珍干岐를 왜에 볼모로 보냈다고 전한다. 여기서 파사매금은 실성왕, 微叱已知波珍干岐는 미사흔을 가리키므로(전덕재,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목간과 문자』 5, 2010, 75~79쪽), 신라본기와 박제상열전의 기록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한다고 볼 수 있다.

8) 신라본기 조분이사금 4년 7월 기록에 '伊飡于老與倭人戰沙道 乘風縱火焚舟 賊赴水死盡'이라고 전하나, 열전제5 석우로전에는 '(助賁王) 四年 七月倭人來侵 于老逆戰於沙道 乘風縱火 焚賊戰艦 賊溺死且盡'이라고 전하고, 또한 신라본기 조분이사금 16년 10월 기록에 '高句麗侵北邊 于老將兵出擊之 不克 退保馬頭柵. 其夜苦寒 于老勞士卒 躬燒柴爇之 群心感激'이라고 전하는 반면, 석우로전에는 '(助賁王) 十六年 高句麗侵北邊 出擊之不克 退保馬頭柵. 至夜士卒寒苦 于老躬行勞問 手燒薪樵暖熱之 羣心感喜如夾纈'이라고 전하여서 두 자료에 보이는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신라본기에서는 첨해이사금 3년 4월에 우로가 왜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으나 석우로열전에서는 첨해왕 7년에 우로가 왜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9) 高寬敏, 「三國史記新羅本紀の國內原典」, 『古代文化』 46: 9·10, 1994;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 1996에서 범용황대까지의 신라본기 기록의 基本原典이 『國史』와 관련이 깊다고 구체적으로 논증한 이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10) 종래에 석우로열전의 전승은 본래 동해안의 于柚村 지방에 퍼져 있던 민간전승이었을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제기되었다(이기동, 「우로전설의 세계」,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역사학회, 1985; 『신라사회사연구』, 일조각, 1997, 41쪽). 그러나 우로가 나해이사금의 아들이면서 舒弗那를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 권9 仲哀天皇(神功皇后 攝政前紀) 9년 12월조에 宇流助夫利智干, 즉 우로에 관한 일화가 전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석우로열전의 기본원전이 동해안에 널리 퍼져 있던

勿稽子란 이름을 신라본기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신라본기와 물계자열전에 공통적으로 전하는 사실이 浦上八國의 난에 관한 것인데, 두 기록의 서술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본기에서는 나해이사금 14년 7월에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加羅를 침범하자, 왕이 太子 于老와 이별찬 利音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고 전하는 반면, 물계자열전에는 막연하게 나해이사금 때에 浦上八國이 함께 모의하여 阿羅國을 치자, 이사금이 王孫 捺音으로 하여금 이웃의 郡과 6부의 군사(近郡及六部軍)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고 전하였던 것이다. 신라본기 기록의 기본원전이 『국사』에 전하는 기록이었다고 보이므로, 『삼국사기』 찬자가 물계자열전을 찬술하기 위해 참조한 전승자료는 『국사』의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와 계통이 다른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5 피은제8 물계자조에서 나해왕 17년 壬辰에 保羅國·史勿國 등 8국이 신라의 변경을 침략하자, 왕이 태자 捺音과 將軍 一伐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고 하였다. 포상팔국이 침략한 곳이 신라의 변경이고, 그 시기도 나해왕 17년이라고 전하여서 신라본기 및 물계자열전의 기록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다면, 『삼국유사』 찬자인 一然이 참조한 전승자료는 물계자열전의 원전과 또 다른 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계통이 다른 浦上八國과 관련된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은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이었고, 『삼국유사』 기록이 가장 늦게 정리된 전승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해된다.¹¹⁾

이상에서 상고기 인물 열전의 원전을 살펴보았다. 거도열전과 이사부열전 가운데 일부 기록의 원전이 김대문의 『계림잡전』이었고, 백결선생열전의 원전은 『약본』에 전하는 기록이거나 여기에 전하는 기록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정리한 전승자료였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밖에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는 『국사』의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와 계통이 다른 별도의 전승자료를 근거로 하여 석우로와 물계자, 박제상열전을 찬술하였으며, 『삼국유사』 찬자는 『삼국사기』 본기와 열전의 찬자가 활용한 저본자료와 계통이 다른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기이편 나물왕 김제상조 및 피은편 물계자조를 찬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흥왕대 이전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이 『국사』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상고기 인물 열전의 원전은 『국사』를 찬술할 때에 참조한 전승자료와 계통이 다른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그것 가운데 일부는 중대에 찬술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살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사』 또는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와 계통이 다르면서도 후대에 부회된 내용이 많이 침입된 상고기 인물 관련 전승자료가 고려 후기까지 전래되었고, 일연이 이러한 것들을 취합하여 『삼국유사』에 침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²⁾

민간전승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전덕재, 「물계자의 피은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1, 2010, 222~232쪽이 참조된다. 한편 물계자열전에서 포상팔국이 아라를 침략하자, 尼師今이 王孫 捺音으로 하여금 이웃의 군과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게 하였다고 전하는데, 일반적으로 ‘王’이라고 표현하였음을 감안하건대, 열전에서 ‘尼師今’이 명하였다고 기술한 점이 유의된다. 김대문이 이사금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왕이 아니라 이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김대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계자열전의 원전이 『계림잡전』에 전하는 기록일 가능성도 한번 상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12)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2 지철로왕조에 이사부를 林伊宗, 우산국을 島夷라고 전하는데, 이를 통해 고려 후기에 부회된 내용이 포함된 이사부의 우산국 관련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고기 인물 열전의 원전과 찬술

『삼국사기』 열전에 입전된 中古期の 인물은 異斯夫, 居柒夫, 斯多舍, 金后稷, 貴山, 奚論, 訥催, 薛闕頭, 설씨녀, 實兮, 劔君, 竹竹, 丕寧子 등이다. 이 가운데 설계두, 설씨녀, 실혜, 김군에 대한 언급은 열전 이외에 신라본기를 비롯한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없고, 『삼국유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군이 花郎 近郎의 낭도였기 때문에 김군열전의 원전이 김대문이 지은 『花郎世記』의 近郎 관련 기록에 전하는 것일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으나,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측은 자제하고자 한다. 설씨녀와 실혜열전은 고려 중기까지 전승된 古記가 원전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서 그것의 성격을 더 이상 考究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계두열전의 경우도 설계두와 관련된 전승자료를 참고하여 찬술하였다고 추정될 뿐이고, 원전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적은 곤란하다.¹³⁾

한편 신라본기에 金后稷이 진평왕 2년(580) 2월에 이찬으로서 兵部令에 임명되었다고 전하고, 김후직열전에는 단지 진평왕 때에 관직에 나아가 이찬이 되고, 곧이어 병부령에 임명되었다고 전한다. 즉 김후직열전에 구체적으로 진평왕 2년 2월에 후직이 병부령에 임명되었다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찬자가 김후직열전의 기록을 참조하여 신라본기에 김후직이 진평왕 2년 2월에 병부령에 임명되었다고 서술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이밖에 김후직에 관한 정보를 신라본기를 비롯한 『삼국사기』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후직열전의 원전 역시 설씨녀와 실혜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후직의 행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전승자료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¹⁴⁾

거칠부와 귀산, 해론, 눌최, 죽죽, 비녕자는 신라본기에 전하는데, 주목되는 사항으로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이들 열전이나 또는 이것들의 원전을 참조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효율적인 논지전개를 위해 신라본기의 기록 및 이것과 관련된 열전에 전하는 기록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중고기 신라본기의 기록과 중고기 인물의 열전에 전하는 기록의 비교

연대	신라본기	열전
진흥왕 12년 (561)	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 乘勝取十郡.	十二年 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滄·比台角滄·耽知迺滄·非西迺滄·奴夫波珍滄·西力夫波珍滄·比次夫大阿滄·未珍夫阿滄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삼국사기』 열전제4 거칠부).
진평왕 24년 (602)	秋八月 百濟來攻阿莫城. 王使將士逆戰 大敗之 貴山箒項死之.	眞平王 建福十九年 壬戌 秋八月 百濟大發兵 來圍阿莫(一作英)城. 王使將軍波珍干乾品·武梨屈·伊梨伐·級干武殷·比梨耶等 領兵拒之 貴山·箒項并以少監赴焉. 百濟敗 退於泉山之澤 伏兵以待之. 我軍進擊 力困引還. 時武殷爲殿 立於軍尾. 伏猝出 鉤而下之. 貴山大言曰 吾嘗聞之師曰士當軍無退 豈敢

13) 황형주, 앞의 논문, 2002, 62쪽에서 설계두 사후에 당나라 문사가 설계두에 관한 기록을 私傳으로 찬술하여 문집에 수록하였던 것을 『삼국사기』 찬자가 입수한 다음, 이것을 전거로 삼아 설계두열전을 찬술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1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상도 경주부 인물조에 김후직의 무덤을 사람들이 墓諫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신라 당대부터 이와 같이 불렀는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후직열전의 원전은 墓諫의 유래를 기술한 전승자료와 관계가 깊다고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대	신라본기	열전
		奔北乎. 擊殺賊數十人. 以己馬出父 與箒項揮戈力鬪. 諸軍見之奮擊 橫尸滿野 匹馬隻輪無反者. 貴山等金瘡滿身 半路而卒. 王與羣臣迎於阿那之野 臨尸痛哭 以禮殯葬 追賜位貴山奈麻·箒項大舍(上同, 귀산).
진평왕 33년 (611)	冬十月 百濟兵來圍椴岑城百日. 縣令讚德固守 力竭死之 城沒.	建福二十七年 庚午 眞平大王選爲椴岑城縣令. 明年 辛未 冬十月 百濟大發兵來攻椴岑城一百餘日. ……讚德憤恨之 謂士卒曰 三州軍帥見敵強不進 城危不救 是無義也. 與其無義而生 不若有義而死. 乃激昂奮勵 且戰且守. 以至糧盡水竭 而猶食屍飲尿 力戰不怠. 至春正月 人既疲 城將破 勢不可復完. 乃仰天大呼曰 吾王委我以一城 而不能全 爲敵所敗. 願死爲大厲 喫盡百濟人 以復此城. 遂攘臂瞋目 走觸槐樹而死. 於是 城陷 軍士皆降(『삼국사기』 열전제7 하론).
진평왕 40년 (618)	北漢山州軍主邊品謀復椴岑城 發兵與百濟戰. 奚論從軍赴適力 戰死之 論讚德之子也.	至建福四十年 戊寅 王命奚論爲金山幢主 與漢山州都督邊品興師襲椴岑城 取之. 百濟聞之 舉兵來 奚論等逆之. 兵既相交 奚論謂諸將曰 昔 吾父殞身於此. 我今亦與百濟人戰於此 是我死日也. 遂以短兵赴敵 殺數人而死. 王聞之 爲流涕 贈卹其家甚厚. 時人無不哀悼 爲作長歌吊之(上同).
진평왕 46년 (624)	冬十月 百濟兵來圍我速舍·櫻岑·岐岑·烽岑·旗懸·穴柵等六城. 於是 三城或沒或降. 級浪訥催合烽岑櫻岑旗懸三城 兵堅守 不克死之.	眞平王 建福四十一年 甲申 冬十月 百濟大學來侵 分兵圍攻速舍·櫻岑·岐岑·烽岑·旗懸·穴柵等六城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先是 國家欲築奴珍等六城而未遑 遂於其地 築軍而歸. 於是 百濟進攻愈急 速舍·岐岑·穴柵三城 或滅或降 訥催以三城固守 及聞五軍不救而還 慷慨流涕 謂士卒曰 陽春和氣 草木皆華 至於歲寒 獨松栢後彫. 今 孤城無援 日益阡危 此誠志士義夫盡節揚名之秋 汝等將若之何. 士卒揮淚曰 不敢惜死 唯命是從. ……至是 城陷賊入 奴張弓挾矢 在訥催前 射不虛發 賊懼不能前. 有一賊出後 以斧擊訥催 乃仆 奴反與鬪俱死. 王聞之悲慟 追贈訥催職級浪(『삼국사기』 열전제7 눌취).
신덕왕 11년 (642)	八月……是月 百濟將軍允忠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浪品釋·舍知竹竹·龍石等死之.	善德王時爲舍知 佐大耶城都督金品釋幢下. 王十一年 壬寅 秋八月 百濟將軍允忠領兵 來攻其城. ……品釋不聽 開門. 士卒先出 百濟發伏兵 盡殺之. 品釋將出 聞將士死 先殺妻子而自刎. 竹竹收殘卒 閉城門自拒 舍知龍石謂竹竹曰 今兵勢如此 必不得全 不若生降以圖後効. 答曰 君言當矣 而吾父名我以竹竹者 使我歲寒不凋 可折而不可屈 豈可畏死而生降乎. 遂力戰, 至城陷 與龍石同死. 王聞之 哀傷 贈竹竹以級浪 龍石以大奈麻 賞其妻子 遷之王都(上同, 죽죽).
신덕왕 원년 (647)	冬十月 百濟兵圍茂山·甘勿·桐岑三城. 王遣庾信率步騎一萬以拒之 苦戰氣竭. 庾信麾下丕寧子及其子學眞入敵陣 急格死之 衆皆奮擊 斬首三千餘級.	眞德王 元年 丁未 百濟以大兵來攻茂山·甘勿·桐岑等城 庾信率步騎一萬拒之. ……百濟兵甚銳 苦戰不能克 士氣索而力憊. 庾信知丕寧子有力戰深入之志 召謂曰……言畢 卽鞭馬橫槊 突賊陣 格殺數人而死. 學眞望之欲去 合節請曰……卽以劍擊折合節臂 奔入敵中戰死. 合節曰 私天崩矣 不死何爲 亦交鋒而死 軍士見三人之死 感激爭進 所向挫鋒陷陣 大敗賊兵 斬首三千餘級(上同, 비녕자).

신라본기 진흥왕 12년 기록과 거칠부열전의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신라본기의 기록은 거칠부열전의 기록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이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거칠부열전에 진흥왕 12년(551)에 왕이 거칠부를 비롯한 8명의 장군에게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략하도록 명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거칠부의 관등은 파진찬 이었고, 장군으로 임명된 사람 가운데 仇珍은 大角浪(大角干), 비타는 角浪(角干)이었으므로, 진흥왕이 고구려를 침략하도록 명하였을 때에 구진 또는 비태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본기에는 왕이 거칠부 등에게 고구려를 침략하도록 명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거칠부열전 또는 이것의 전거자료에 전하는 기록을 축약하여 신라본기에 첨입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¹⁵⁾

신라본기와 거칠부열전에 진흥왕 6년(545)에 거칠부가 文士들을 모아 『國史』를 편찬하고, 진지왕 원년(576)에 상대등에 임명된 사실이 모두 전하나, 기술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¹⁶⁾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거칠부열전의 기록을 참조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신라본기에 첨입하였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신라본기의 원전, 즉 『구삼국사』 기록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거칠부열전에서 거칠부의 가계와 행적, 78세에 사망한 사실 등을 기술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칠부열전의 원전은 거칠부의 행적을 정리한 行狀의 성격을 지닌 전승자료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신라본기 진평왕 24년 8월 기록에는 단지 아막성전투에서 貴山·箒項이 죽었다고만 언급하였는데,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귀산열전에 나온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귀산열전이나 이것의 원전을 참조하여 신라본기에 아막성전투에서 귀산·추항이 죽었다는 사실을 첨입하였다고 이해하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백제본기 무왕 3년 8월 기록에도 아막성전투에 관한 기록이 전하는데, 귀산열전의 기록과 내용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백제본기의 기록과 귀산열전의 원전은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백제본기 기록은 『구삼국사』의 백제 기록이 원전으로 추정되고, 귀산열전의 원전은 귀산의 행적을 기술한 신라의 전승자료로 이해된다.

신라본기 진평왕 33년 10월 및 40년 기록과 해론열전의 기록을 비교하면, 신라본기의 기록이 해론열전의 기록을 축약하여 서술한 것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해론열전이나 이것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여 신라본기를 산술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¹⁸⁾ 신라본기 진평왕 46년 10월 기록과 눌최열전의 기록을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신라본기에는 穴柵이라고 기술되어 있음에 반해, 눌최열전에는 冗柵으로 기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轉寫過程에서 무엇인가 착오가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신라본기에는 ‘(6성 가운데) 3성이 함락되거나 혹은 항복하였다. 급찬 눌최는 봉잠·앵잠·기현성의 3성 군사와 합하여 굳게 지켰다(三城或沒或降 級浪訥催合烽岑·櫻岑·旗懸三城兵堅守).’고 전하나, 눌최열전에는 ‘이에 백제의 침공이 더욱 급박하여져서 속함, 기잠, 혈책의 3성이 함락되거나 또는 항복하였다. 눌최가 3성을 굳게 지켰다(於是 百濟侵攻愈急 速含·岐岑·冗柵三城 或滅或降 訥催以三城

1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강래,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07, 273~274쪽 및 전덕재,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98쪽이 참조된다.

16) 신라본기 진흥왕 6년 7월 기록에 曷斯夫가 『국사』의 편찬을 건의하였다고 전하나, 거칠부열전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신라본기 진지왕 원년 기록에는 거칠부를 상대등에 임명하고, 國事を 위임하였다(委以國事)고 전하나, 거칠부열전에는 상대등이 되어 군사와 국가의 일을 맡았다(以軍國事務自任)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신라본기 두 기록의 원전이 거칠부열전의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백제본기에는 ‘武殷子貴山大言曰 吾嘗受教於師 曰土當軍無退 豈敢奔退以墜師教乎. 以馬授父 即與小將箒項 揮戈力鬪以死’라고 전함에 비해, 귀산열전에는 ‘貴山大言曰 吾嘗聞之師曰 土當軍無退 豈敢奔北乎. 擊殺賊數十人 以已馬出父 與箒項揮戈力鬪 諸軍見之奮擊 橫戶滿野 匹馬隻輪無反者. 貴山等金瘡滿身 半路而卒’이라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18) 신라본기 진평왕 40년 기록에는 北漢山州 邊品, 해론열전에는 漢山州都督 邊品이라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에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해론열전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단지 해론에 관한 정보만 해론열전을 참조하여 신라본기에 첨입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固守).’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눌최열전의 기록을 가지고 함락되거나 항복한 3성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고, 눌최가 죽은 후에 급찬의 관등을 추증받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눌최열전이나 이것의 원전을 참조하여 눌최와 관련된 기록을 나름대로 편집하여 신라본기에 침입하였다고 추정하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론열전과 눌최열전의 원전은 해론의 父子와 눌최의 殉國을 정리한 전승자료였을 것인데, 이 가운데 椶岑城縣令, 漢山州都督이란 표현이 나오는 해론열전의 원전은 縣制를 실시하고 州의 장관을 摠管 또는 都督이라고 부른 중대 이후에 찬술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¹⁹⁾

신라본기 선덕왕 11년 8월 기록과 죽죽열전의 기록을 비교하면, 신라본기의 기록이 죽죽열전의 기록을 축약하여 기술한 것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죽죽열전에는 품석의 관등이 이찬이었다는 언급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삼국사기』 찬자가 죽죽열전이나 이것의 원전을 참조하여 신라본기에 대야성전투에 관한 기록을 침입하면서도 품석의 관등이 이찬이라고 전하는 또 다른 전승을 참조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죽죽열전의 원전에 품석이 이찬이었다는 기술이 있었으나, 『삼국사기』 찬자가 죽죽열전을 찬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생략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죽죽열전에서 품석을 대야성도독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죽죽열전의 원전은 주의 장관을 총관 또는 도독이라고 부른 중대 이후에 찬술된 전승자료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라본기 진덕왕 원년 10월 기록과 비녕자열전의 기록을 비교하여 보건대, 신라본기 기록이 비녕자열전의 기록을 축약하였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비녕자열전에 ‘10월’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이 비녕자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녕자열전의 원전은 김유신행록이었음이 확인된다.²⁰⁾ 따라서 신라본기의 찬자는 김유신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인 김유신행록의 기록을 참조하여 진덕왕 원년 10월 기록을 찬술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상에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거칠부와 귀산, 눌최, 해론, 죽죽, 비녕자열전이나 그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인용하였거나 참조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필자는 전에 신라본기 선덕왕 13년 9월, 16년 정월, 진덕왕 3년 8월 기록의 원전이 김유신열전 또는 김유신행록에 전하는 기록이었음을 살핀 바 있는데,²¹⁾ 이에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중고기 신라본기 기록을 찬술하면서 중고기 인물의 열전이나 또는 이것들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

19) 종래에 진평왕대부터 行政村을 縣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전개하다가 신문왕 5년(685) 무렵에 전국적으로 縣制를 확대 실시하였다고 보는 견해(김창석, 「신라 현제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128~136쪽)가 제기되었다. 『삼국사기』 잡지제9 직관(하) 외관조에 ‘都督은 9명이었다. 지증왕 6년(505)에 異斯夫를 悉直州軍主로 삼았다. 문무왕 원년(661)에 摠管으로 고쳤다가 원성왕 원년(785)에 都督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이에 따르면, 州의 장관 명칭이 軍主에서 摠管으로, 摠管에서 都督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태종무열왕 5년(658)까지 州의 장관을 軍主라고 부르다가 태종무열왕 7년(660)부터 주의 장관을 摠管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무왕 3년(663) 이후에 주의 장관을 摠管 또는 都督이라고 불렀음을 알려주는 기록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해공왕대에 제작된 「사천선진리비」에 주의 장관을 摠管이라고 불렀다고 전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직관지의 기록에서 문무왕 원년에 군주를 총관으로 고쳤다고 언급한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문무왕 3년부터 해공왕대까지 주의 장관을 총관 또는 도독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관지에 원성왕 원년에 총관을 도독이라고 개칭하였다고 전하는 것은 결국 원성왕 원년부터 주의 장관을 단지 도독이라고만 부른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것이다.

20) 전덕재,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020, 18~19쪽.

21) 전덕재, 앞의 책, 2018, 100~102쪽.

한 경향과 달리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참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사다함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이었다.

신라본기 진흥왕 23년(562) 9월 기록에 ‘戰功을 논함에 사다함이 으뜸이었으므로, 왕이 좋은 토지와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다함이 세 번이나 사양하였다. 왕이 굳이 주므로 이에 받아 포로는 贖良하고, 토지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니, 나라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고 전한다. 그런데 사다함열전에서는 ‘군사가 돌아오자, 왕은 공을 책정하여 加羅 사람 300명을 (斯多舍에게) 주었다. 이를 받아서 다 놓아 주고 한 사람도 남겨 놓지 않았다. 또 田地를 사여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왕이 강권하므로 關川의 쓸모없는 땅만을 주도록 청할 따름이었다.’고 전하여 신라본기의 기록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사다함열전이나 이것의 원전을 전혀 참조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데, 사다함이 화랑이었기 때문에 사다함열전의 원전은 김대문이 지은 『花郎世記』에 전하는 기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²²⁾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사다함열전에 전하는 ‘奈密王’이란 王號이다.

『삼국사기』에서 奈密王이라고 표기한 왕호는 사다함열전과 김흠운열전, 그리고 잡지제1 악 신라악조에만 전한다. 신라악소에서 ‘筋舞는 奈密王 때에 지은 것이다.’라고 전하고, 사다함열전에서 사다함이 奈密王 7세손, 김흠운열전에서 흠운이 奈密王 8세손이라고 전한다. 앞에서 신라악조의 원전은 김대문이 지은 『樂本』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라악조에 전하는 향악의 명칭 및 그와 관련된 유래에 대한 기록이 『악본』에 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서 나밀왕이라는 王號를 김대문이 사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삼국사기』 찬자는 김흠운열전 말미에 기술한 사론에서 화랑의 유래와 그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 김대문이 200여 명에 이르는 화랑의 전기를 찬술하였음을 기술한 다음, ‘散運 같은 자는 또한 郎徒로서 능히 王事に 목숨을 바쳤으니,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附記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김흠운열전에서 흠운이 화랑 文努의 낭도였다고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 찬자가 김흠운열전의 말미에 서술한 史論에서 김대문이 『花郎世記』를 저술하였음을 언급한 점에 유의하건대,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이 바로 김흠운열전의 원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잘못된 아닐 것이다.²³⁾ 마찬가지로 奈密王이라는 왕호가 기술되어 있는 사다함열전의 원전 역시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삼국사기』 열전 가운데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이 원전인 사례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창열전이다.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660) 7월 9일 기록에 ‘左將軍 品日이 아들 官狀(또는 官昌이라고도 하였다)을 불러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아들은 나이 겨우 열 여섯이나 의지와 기백이 자못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三軍의 모범이 되리라”라고 하였다. 관창이 ‘예’하고는 감옷 입힌 말을 타고 창 한 자루를 가지고 적진에 달려 들어갔다.’고 전한다. 그런데 관창열전에는 ‘관창

22) 이강래,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07, 289쪽 및 전덕재, 앞의 책, 2018, 111~112쪽.

23) 『삼국사기』 신라본기제8 신문왕 3년 2월과 효소왕 즉위년 기록에는 金欽運(또는 金欽雲)이라고 전하는데, 김흠운열전에서 金散運이라고 표기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신라본기에서 金欽運을 金散運이라고도 쓴다고 세주로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화랑세기』의 김흠운 관련 기록을 참조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는 官狀이라고도 하였다〉은 신라 장군 品日의 아들이다. ……황산벌에 이르러 양쪽의 군대가 서로 대치하자, 아버지 품일이 (官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뜻과 기개가 있으니, 오늘이 바로 功名을 세워 부귀를 취할 수 있는 때이니 어찌 용기가 없을손가?”라고 하였다. 관창이 ‘예’하고는 곧바로 진격하여 말을 달려갔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신라본기에서 官狀, 堦伯이라고 표기한 반면, 관창열전에서는 官昌, 階伯이라고 표기한 사실, 신라본기와 관창열전에 전하는 기록의 내용이 상이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본기 기록이 관창열전 원전에 전하는 기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관창 역시 화랑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관창열전의 원전 역시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본기 기록과 『화랑세기』가 원전으로 추정되는 사다함열전, 관창열전, 김흠운열전에 전하는 기록이 서로 상이하었다는 사실을 통해 『삼국사기』 찬자가 열전을 찬술할 때에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을 적극 활용한 반면, 신라본기를 찬술할 때에는 그것을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고 정리하여도 무방할 듯싶다.²⁴⁾

중고기 인물의 열전 가운데 사다함열전의 원전은 金大問이 지은 『花郎世記』, 비녕자열전의 원전은 김유신 행록이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외의 인물 열전의 원전은 각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검군열전의 원전은 『화랑세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죽죽열전과 해론열전의 원전은 중대 이후에 정리된 전승자료였음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중고기의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거칠부열전, 귀산열전, 해론열전, 눌최열전, 비녕자열전, 김유신열전이나 또는 이것들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였음에 반하여, 신라본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다함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인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사실과 대조되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설계두열전과 실희열전, 설씨녀열전, 검군열전, 김후직열전 및 이것들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구삼국사』 신라 기록을 원전으로 하여 중고기의 신라본기를 찬술할 때에 중고기 인물의 열전 또는 이들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축약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신라본기에 첨입하였는데, 신라본기와 열전의 기록이 서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배려로 이해된다. 또한 이를 통해 중고기 신라본기 기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신라본기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은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국사』가 원전인 상고기 신라본기 기록 또는 비교적 기록이 풍부한 중·하대 신라본기 기록을 찬술하면서 열전이나 이것의 원전에 전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사실과 대비되어 주목된다. 이밖에 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이 신라본기의 기록과 내용상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細注로서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하게 부기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가 중고기 인물의 열전을 찬술할 때에 신라본기와 잡지에 전하는 기록을 적극 고려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24) 전덕재, 앞의 책, 2018, 111~112쪽.

Ⅲ. 중·하대 인물 열전의 원전과 찬술

『삼국사기』 열전에 입전된 중·하대 인물은 김인문, 김양, 장보고, 녹진, 강수, 설총, 최치원, 취도, 관창, 김흠운, 김영운, 열기, 소나, 필부, 향덕, 성각, 김생, 솔거, 효녀지은 등이다. 앞에서 관창열전과 김흠운열전의 원전은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삼국사기』에서 聖覺과 率居, 金生, 金命胤에 관한 기록은 오직 열전에만 전하는 것이다. 이밖에 『삼국유사』와 중국 사서에도 전하지 않는다. 성각열전은 현재 성각과 관련된 일화를 기술한 전승자료가 원전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하다.

김생과 솔거열전의 원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삼국사기』 찬자는 두 사람의 열전에서 그들의 행적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두 사람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補入한 점이 특징적이다. 김생열전에서는 김생이 隸書와 行書, 草書를 씀에 있어 入神의 경지였다고 칭송하고, 지금(고려)까지도 그의 친필을 서로 전하여 귀하게 여긴다고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洪灌이 김생이 쓴 행서와 초서 글씨 한 권을 가지고 가서 송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일화를 추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김생열전의 말미에 姚克一傳을 附記하였는데, 요극일이 김생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점이 이채롭다. 솔거열전에서는 솔거가 그린 황룡사벽화에 얽힌 일화와 더불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고, 그의 작품들이 神畫로 칭송받았음을 언급하였다.

김영운에 관한 정보는 신라본기에 전하지 않지만, 그의 祖父인 金欽春, 아버지인 盤屈에 관한 기록을 신라본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영운열전에서 김영운의 조부를 金欽春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660) 6월 21일 기록을 제외한 신라본기 기록에 欽純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한편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7월 7일 기록에 반굴에 관한 일화가 보인다. 김영운열전과 이 기록에 전하는 내용을 비교하면, 신라본기에 欽純과 堦伯, 열전에 欽春과 階伯이라고 전하는 것 이외에 내용과 표현상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그러나 두 사람의 표기가 달랐기 때문에 김흠운열전의 기록이 신라본기 기록의 전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영운열전에서 흠춘이 진평왕 때에 화랑이 되었고, 문무대왕대에 冢宰에 임명되어 윗사람을 충성으로 섬기고 백성들에게는 관대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賢相이라고 칭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을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김대문의 『화랑세기』에서 인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²⁶⁾ 반굴에 관한 일화 역시 마찬가지로 짐작된다. 다만 김영운에 관한 일화 역시 『화랑세기』에서 인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김영운이 悉伏이 지휘한 고구려 유민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사하자, ‘왕(신문왕)이

2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7월 7일 기록에 ‘百濟將軍堦伯 擁兵而至……將軍欽純謂子盤屈曰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盤屈曰 謹聞命矣 乃入陣 力戰死’라고 전하고, 김영운열전에는 ‘秋七月 至黃山之原 值百濟將軍階伯 戰不利. 欽春召子盤屈曰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盤屈曰 唯 乃入賊陣 力戰死’라고 전한다.

26) 김흠운열전의 말미에 부기한 史論에서 『삼국사기』 찬자는 金大問이 ‘賢佐忠臣이 이로부터 나왔고, 良將勇卒이 이로부터 생겨났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는데, 김흠춘을 현좌충신과 양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들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흠춘에 관한 기록은 『화랑세기』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듣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그러한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없다. 그 의로운 공이 가상하다.”고 하고는 벼슬과 상을 후하게 추증하였다.’고 김영윤열전에 전하는 것을 참고하건대, 그러하였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만약에 원전이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이 아니라면, 『삼국사기』 찬자는 『화랑세기』와 더불어 영윤에 관한 일화를 정리한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김영윤열전을 찬술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효녀지은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열전에만 나온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5 효선제9 빈녀 양모조에 효녀지은열전에 전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동일 인물에 관한 일화를 기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록의 서술 내용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효녀지은열전에서는 知恩이 韓岐部 百姓 連權의 딸로서 나이가 32세라고 전하나 빈녀양모조에서는 貧女가 芬皇寺 東里에 살며 나이가 20세 左右라고 전하여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려시대에 두 가지 이상의 계통이 다른 知恩 관련 전승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효녀지은열전에 지은이 사는 곳이 한기부이고, 그 마을을 孝養坊이라고 칭하였다고 전함에 반하여, 빈녀양모조에 빈녀가 사는 곳이 분황사 동리이고, 그녀가 사는 坊에 旌門을 세워 孝養 마을이라고 불렀다고 전하므로 전자의 원전이 후자의 원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찬술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인문과 김양열전의 경우, 두 사람의 시기별 행적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行狀의 성격을 지닌 전승자료가 원전으로 추정된다.²⁷⁾ 현재 金仁問碑의 일부가 남아 있고, 또한 그에 관한 기록이 신라본기와 김유신열전 등에 적지 않게 전하고 있다. 김인문열전과 김인문비 殘片의 기록을 비교한 결과, 서로 비슷한 내용을 전한다고 추정되지만, 『삼국사기』 찬자가 김인문열전을 찬술할 때에 김인문비를 적극 참조하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한편 신라본기와 김유신열전에 전하는 김인문 관련 기록과 김인문열전의 기록이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표현상에 차이가 남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무왕 2년 2월에 김유신과 김인문 등이 평양에 주둔한 당군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靺河(靺川) 근처에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신라본기 문무왕 2년 2월 기록에서는 이 싸움에서 신라군이 크게 이겨 1만여 명을 목 베고 小兒 阿達兮 등을 사로잡았으며, 병기 1만여 개를 획득하였다고 전하고, 김유신열전에는 장군 한 사람을 사로잡았고, 1만여 명의 목을 베었다고 전한다. 이에 반해 김인문열전에서는 1만여 명을 목 베고 5천여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신라본기 문무왕 8년 7월 16일 기록에 문무왕이 고구려정벌을 위해 漢城州에 行次하였다고 전하는 반면, 김인문열전에는 668년에 문무대왕이 인문과 함께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출동하여 北漢山城에 이르렀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김인문열전에 다른 기록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게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인문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기술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김인문열전의 기록 가운데 일부는 중국 사서의 기록을 참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27) 황형주, 앞의 논문, 2002, 92-96쪽.

황형주는 김인문열전과 김양열전에서 행장에서의 표기법으로서 입전대상자를 공이라고 높여 불렀고, 두 사람의 죽음을 ‘薨’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주목하여, 두 사람 열전의 원전이 행장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충분히 공감되는 바라 하겠다.

674년에 당 고종이 문무왕의 관작을 박탈하고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아 귀국시키려 하였다는 기록을 들 수 있다. 다만 김인문이 고종에게 간곡히 사퇴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여 드디어 귀국길에 올랐다는 내용은 김인문열전에만 보이고 다른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측면들을 두루 고려하건대, 『삼국사기』 찬자는 신라본기의 원전인 『구삼국사』 신라 기록과 김유신행록 등을 참조하지 않고, 김인문의 행적을 정리한 行狀의 성격을 지닌 전승자료를 전거로 삼아 김인문열전을 찬술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삼국사기』 찬자는 김인문열전 말미에 인문이 일곱 번 당에 들어가 그 조정에 숙위한 월일을 계산하면 무릇 22년이 되었고, 良圖 海食 역시 당나라에 여섯 번 들어갔고, 西京에서 죽었는데, 그 행적의 시말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附記하였다. 고구려 인물의 경우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立傳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²⁸⁾ 달리 『삼국사기』 찬자는 신라본기와 김유신열전(김유신행록)에 良圖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열전에 良圖를 입전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서 신라 인물의 경우 그에 관한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열전에 立傳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²⁹⁾

김양과 관련된 기록은 신라본기에도 여럿 전하지만, 김양열전에 전하는 기록과 대비할 때, 내용과 표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³⁰⁾ 신라본기 기록의 전거자료가 김양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김양열전에 신라본기에 전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김양열전은 김양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를 토대로 하여 찬술되었다고 이해하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편 신라본기에 문성왕 4년 3월에 김양의 딸을 왕비로 삼았고, 문성왕 9년에 김양이 시중에 임명되었다고 전하지만, 김양열전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전하지 않는다. 이는 『삼국사기』 찬자가 김양열전을 찬술할 때 신라본기 또는 이것의 원전인 『구삼국사』 신라 기록을 참조하지 않고, 다만 김양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를 전거로 삼았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유의된다고 하겠다. 『삼국사기』 찬자는 김양열전에 김양의 四寸인 金昕의 傳記를 부기하였는데, 김흔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그가 大中 3년(849) 8월 27일에 4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아들이 없어 그의 부인이 장례를 치르고 후에 비구니가 되었다고 기술한 사실을 참조하건대, 김흔의 행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28) 乙巴素列傳, 密友·紐由列傳, 明臨答夫列傳, 倉助利列傳은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전거자료로 삼아 찬술한 사례에 해당하다.

29) 종래에 양도를 立傳하지 않은 이유를 그가 불교에 대한 독실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이해한 견해(김복순, 앞의 논문, 2004, 235쪽 및 이강래,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07, 285쪽)와 더불어 그가 최치원, 설총, 강수에 필적할 만한 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시민강좌』 1, 일조각, 1987, 98-99쪽)가 제기되어 참조된다.

30) 신라본기 회강왕 즉위년 기록에 '於是 侍中金明阿滄利弘裴萱伯等奉梯陞 阿滄祐徵與姪禮徵及金陽奉其父均貞 一時入內相戰'이라고, 김양열전에는 '陽與均貞之子阿滄祐徵·均貞妹婿禮徵 奉均貞爲王 入積板宮 以族兵宿衛'라고 전하는데, 전자에는 禮徵이 우정의 조카(姪)로, 후자에는 우정의 아버지 均貞의 妹婿로 기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신라본기 민애왕 2년 윤정월 기록에 '晝夜兼行 十九日至于達伐之丘 王聞兵至 命伊滄大斯大阿滄允璘癡助等 將兵拒之. 又一戰大克 王軍死者過半. 時王在西郊大樹之下 左右皆散 獨立不知所爲 奔入月遊宅 兵士尋而害之'라고, 김양열전에는 '(開成)四年(839)正月十九日 軍至大丘 王以兵迎拒 逆擊之 王軍敗北 生擒斬獲 莫之能計. 時 王顛沛逃入離宮 兵士尋害之'라고 전하는데, 전자에는 김양 등이 지휘한 군대가 '達伐之丘'에 이르렀고, 민애왕이 숨은 곳이 '月遊宅'이라고 기술되어 있음에 반해, 후자에는 각기 '大丘', '離宮'으로 기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밖에 신라본기와 김양열전의 기록이 다른 사례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중·하대 인물의 열전에 전하는 기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신라본기에도 전하는데, 신라본기의 기록과 관련이 있는 열전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중·하대 신라본기와 인물 열전에 전하는 기록의 비교

번호	신라본기	열전
I-①	(文武王) 二年 春正月 王命庾信 與仁問·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文武王元年……送軍資平壤. 王命大角干金庾信 輸米四千石·租二萬二千二百五十石. 到獐塞 風雪沍寒 人馬多凍死. 麗人知兵疲 欲要擊之. 距唐營三萬餘步而不能前 欲移書而難其人. 時 裂起以步騎監輔行 進而言曰 某雖驚蹇 願備行人之數. 遂與軍師仇近等十五人 持弓劔走馬 麗人望之 不能遮闕 凡兩日致命於蘇將軍. 唐人聞之 喜慰廻書. 裂起又兩日廻 庾信嘉其勇 與級滄位(『삼국사기』 열전제7 열기).
I-②	(太宗武烈王) 七年 十一月一日 高句麗侵攻七重城 軍主匹夫死之.	太宗大王以百濟·高句麗·靺鞨轉相親比 爲脅齒 同謀侵奪. 求忠勇材堪綏禦者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以冬十月 發兵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匹夫與上千本宿·謀支·美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上同, 필부).
I-③	(文武王) 十一年 春正月 發兵侵百濟. 戰於熊津南. 幢主夫果死之. (神文王) 四年 十一月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鬪幢主逼實死之.	後咸亨二年辛未(671년) 文武大王發兵 使踐百濟邊地之禾. 遂與百濟人 戰於熊津之南. 時 夫果以幢主戰死 論功第一. ……文明元年甲申(684) 高句麗殘賊 據報德城而叛 神文大王命將討之 以逼實爲貴幢第監. ……及對陣 獨出奮擊 斬殺數十人而死(上同, 취도).
I-④	(憲德王) 十四年 春正月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秀宗或云秀升). ……三月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 反叛. ……戮宗族黨與凡二百三十九人 縱其民. 後 論功爵賞有差 阿滄祿眞授位大阿滄 辭不受.	(憲德王) 十四年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爲儲貳 入月池宮. ……後 熊川州都督憲昌反叛 王學兵討之. 祿眞從事有功 王授位大阿滄 辭不受(『삼국사기』 열전제5 녹진).
I-⑤	(文武王) 十三年 春正月 拜強首爲沙滄 歲賜組二百石.	文武王曰 強首文章自任 能以書翰致意於中國及麗·濟二邦 故能結好成功. ……則強首之功 豈可忽也. 授位沙滄 增俸歲租二百石(『삼국사기』 열전제6 강수).
I-⑥	(景德王) 十四年 春 穀貴民饑. 熊川州向德 貧無以爲養 割股肉飼其父.	天寶十四年乙未 年荒民饑 加之以疫癘 父母飢且病 母又發癘 皆瀆於死. 向德日夜不解衣 盡誠安慰 而無以爲養 乃割髀肉以食之. 又吮母癘 皆致之平安(『삼국사기』 열전제8 향덕).

I-①의 경우, 신라본기에는 문무왕 2년 정월에 당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쌀 4천 석과租 2만 2천여 석을 수레에 싣고 갔다고 전하는 반면, 열기열전에는 문무왕 원년에 쌀 4천 석과租 2만 2천 2백 5십 석을 싣고 갔다고 전하여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에는 김유신이 열기 등을 평양에서 3만 6천보 떨어진 곳에서 당군영에 보냈다고 전하는 반면, 후자에는 3만여 보라고 전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본기와 열기열전의 기록이 상이하였으므로,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이 열기열전의 기록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종래에 열기열전의 원전이 바로 김유신행록이었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³¹⁾ 그러나 김유신열전에 ‘유신이 말하기를, “당나라 군대의 식량 부족이 심할 터이니, 마땅히 먼저 알려야겠다.”고 하고는 步騎監 裂起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젊어서 그대와 놀 때 너의 뜻과 절의를 알았다. 지금 蘇將軍에게 소식을 전해야 하겠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네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열기가)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외람되이 中軍職을 맡았고, 하물며 장군께서 시키신다면 비록 죽는 날도 살아 있는 때와 같다고 여기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드디어 힘센 군사 仇近 등 15명을 데리고 평양으로 갔다.’고 전한다. 그런데 열기열전에는 ‘당나라 군영과의 거리는 3만여 보 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더 전진할 수 없어 편지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그때 열기는 보기감으로서 행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비록 우둔하고 느리지만 파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드디어 군사 仇近 등 15인에 끼어 활과 큰 칼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전한다. 김유신열전의 원전이 김유신행록이라는 사실 및 두 열전에 전하는 열기 관련 기록이 완전히 상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열기열전의 원전이 김유신행록이라고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열기열전의 경우도 다른 인물열전과 마찬가지로 그 원전은 열기에 관한 행적을 기술한 전승자료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열기열전의 말미에 仇近과 김유신의 아들 元貞 사이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였는데, 여기에 김유신을 太대角干이 아니라 大角干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건대,³²⁾ 구근에 관한 일화 역시 김유신행록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②의 신라본기에는 匹夫를 軍主라고 전하나, 필부열전에는 七重城縣令이라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신라본기의 원전과 필부열전의 원전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I-③의 신라본기 기록에는 문무왕 11년 정월에 幢主 夫果가 죽었다고 전하는 반면, 취도열전에는 단지 문무왕 11년에 夫果가 幢主로서 전사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다른 신라본기 기록에는 부과의 막내 동생인 逼實이 幢主였다고 전하고, 취도열전에는 貴幢弟監이었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신라본기 기록들의 원전이 취도열전의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 I-④의 신라본기에서는 秀宗을 儲貳로 삼았다고 하였으나, 녹진열전에서는 副君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신라본기 기록에 아찬 녹진이 김현창 반란을 진압할 때에 공을 세워 대아찬을 수여하였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고 전하는데, 녹진열전에도 동일한 기록이 전한다. 다만 열전에서 녹진의 관등이 본래 아찬이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녹진열전의 원전에 녹진이 아찬이었다는 언급이 있었거나, 아니면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녹진이 본래 아찬이었다고 전하는 전승자료와 녹진열전의 원전을 참조하여 신라본기의 기록을 찬술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녹진의 행적을 기술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31) 高寬敏, 앞의 책, 1996, 156~158쪽.

32) 『삼국사기』 열전제3 김유신(하)조에 ‘後에 智昭夫人이 머리를 깎고 거친 옷을 입고 比丘尼가 되었다. 때에 大王(聖德王)이 夫人에게 말하기를, “지금 중앙과 지방이 평안하고 君臣이 높은 배개를 베고 자며 근심이 없는 것은 곧 太대角干의 공이다. 생각컨대 夫人이 집안을 잘 다스려 조심히고 훈계함이 서로 짝하여 숨은 공이 컸으므로 과인이 그 덕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일찍부터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다. 이에 해마다 南城의 租 1천 석을 사여한다.”고 하였다.’고 전하는데, 여기서 김유신을 태대각간이라고 칭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I-⑤의 강수열전에서 구체적인 연대를 밝히지 않고 문무왕이 사찬의 관등을 수여하고 歲租 200石으로 俸祿을 올려주었다고 언급한 반면, 신라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문무왕 13년 정월에 강수에게 사찬의 관등을 수여하고 세조 200석을 주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강수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을 참조하여 신라본기에 강수에게 사찬의 관등과 세조 200석을 수여한 사실을 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른 인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수열전의 원전 역시 강수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강수열전의 말미에 新羅 古記에 문장으로는 強首, 帝文, 守眞, 良圖, 風訓, 骨齋이 유명하다고 전한다고 언급하면서, 제문 이하의 행적이 전하지 않아 전기를 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 新羅 古記에 제문 등의 행적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古記는 단순하게 신라의 옛 기록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I-⑥의 신라본기에는 향덕이 다리 살을 베어 그 아버지에게 먹었다고 전하는 반면에 향덕열전에는 ‘부모가 굶주리고 병이 났으며, 어머니는 종기가 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향덕이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편안히 위로하였으나 봉양할 것이 없어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떼내어 먹게 하고, 또 어머니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 모두 완쾌시켰다.’고 전하는데, 두 기록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5 효선제9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條에 向德을 向得이라고 표기하고, 향덕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향득(향덕)이 사지라는 정보는 『삼국사기』에 전하지 않으므로, 향덕열전의 찬술에 참조한 전승자료 이외에 향덕과 관련된 또 다른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음을 이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이밖에 신라본기에 문무왕 15년(675) 9월에 城主 素那가 阿達城에서 靺鞨과 싸우다가 죽었다고 전함에 비해, 소나열전에는 백제 멸망 후에 漢州都督 都儒가 소나를 아달성에 천거하였고, 上元 2년(675) 봄에 소나가 아달성에서 말갈과 싸우다가 죽었다고 전한다. 두 기록에 아달성전투의 발발 시점이 다르게 전하고, 후자에 소나가 성주였다는 표현이 전하지 않은 점을 참조하건대, 신라본기 문무왕 15년 9월 조의 소나 관련 기록과 소나열전의 원전은 동일한 것이 아니었고, 소나열전의 원전 역시 소나에 관한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였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하대 인물의 열전에 전하는 기록과 신라본기에 전하는 기록을 상호 비교한 결과,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할 때에 녹진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을 참조하였을 가능성만을 살필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이 열전의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하대 신라본기의 기록과 김유신열전에 전하는 기록을 비교하여 검토할 때에도 엿볼 수 있었다.³³⁾ 또한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열전이나 이것의 원전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 신라본기를 찬술하였고,

33) 신라본기 문무왕 4년(664) 3월 기록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泗泚山城에 의지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熊州都督이 군사를 일으켜 쳐서 깨트렸다(百濟殘衆據泗泚山城叛 熊州都督發兵 攻破之),’고 전한다. 그리고 열전제3 김유신열전(하)에 ‘麟德 元年(문무왕 4; 664)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가 또 사비성에 모여 반란을 일으키자, 熊州都督이 자신이 관할하는 병력을 출동시켜 공격하였는데, 여러 날 동안 안개가 끼어 사람과 물건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싸울 수 없었다. 伯山을 시켜 (그 사연을) 고하니, 유신이 은밀한 계책을 주어 이기게 하였다(麟德元年甲子三月 百濟餘衆又聚泗泚城反叛 熊州都督發所管兵士攻之 累日霧塞 不辨人物 是故不能戰. 使伯山來告之 庾信授之陰謀以克之).’라고 전한다. 두 기록에서 熊津都督을 모두 熊州都督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전자의 기록은 후자의 기록을 요약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라본기 문무왕 4년 3월 기록은 중대의 신라 기록 가운데 김유신열전의 기록이 원전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열전의 찬자는 비록 신라본기에 어떤 인물의 행적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고구려의 인물처럼 신라본기의 기록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열전에 그 인물을 立傳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었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주요 전거자료로 삼은 『구삼국사』 신라 기록이 비교적 풍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삼국사』 기록에 열전에 입전된 인물에 관한 기록이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본기를 찬술할 때에 중·하대 인물의 열전에 전하는 기록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아가 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에 전하는 자료를 신라본기에 보입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IV. 설총·최치원·장보고열전의 원전과 찬술

설총열전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설총의 祖父 및 부친인 元曉에 대한 소개, 그의 성품과 행적에 대한 매우 간략한 설명, 설총이 지은 글이 전해지는 것이 없고, 남쪽 지방에 그가 지은 碑銘이 있으나 마멸되고 떨어져나가 읽을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락은 설총이 신문왕에게 이야기한 花王戒와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부분이고, 세 번째 단락은 설총의 아들 薛判官(薛仲業)에 관한 일화와 고려 현종 13년(1021)에 설총을 弘儒侯로 추증한 내용, 설총이 당나라에 유학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언급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삼국사기』 찬자가 어떤 전승자료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총에 관한 전승자료에 전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직접 補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유사』 권제4 의해제5 元曉不羈條에 원효의 조부가 仍皮公 또는 赤大公이고, 아버지는 談捺乃未이며, 스스로 小姓居士로 자처하였다고 전한다. 설총열전에는 설총의 증조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소성거사의 표기도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³⁴⁾ 이어서 『삼국사기』 찬자가 일연이 참조한 전승자료와 별도의 전승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한편 「高仙寺誓幢和尚碑」에 大曆年間(766~780) 봄에 원효대사의 손자인 翰林 仲業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자, 일본의 上宰가 중업이 원효대사의 賢孫인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 또한 『續日本紀』 권36 光仁天皇 寶龜 11년(780) 정월조에 김유신의 후손 金巖 등과 함께 大判官 奈麻 薩仲業(薛仲業)이 신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설판관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기술한 것에서 『삼국사기』 찬자가 「고선사서당화상비」를 보지 못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고려 중기까지 일본 真人, 즉 上宰가 지어서 중업에게 준 詩와 그 序文이 전하였는데, 『삼국사기』 찬자는 이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世傳’이라고 표현하고, 진인이 지은 시의 서문만을 설총열전에 소개하였던 것이다. 화왕계에 얽인 일화의 원전은 정확하게 고구하기 어렵다. 다만 김대문의 『계림잡전』에서 여러 가지 설화와 일화를 소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건대, 화왕계에 얽인 일화 역시 『계림잡전』

중대의 신라본기 기록에서 김유신열전의 기록이 원전인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4) 설총열전에서는 小姓居士라고 표기하였다.

에 소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삼국사기』 찬자는 설총열전의 말미에 崔承祐, 崔彥撫, 金大問에 관한 간략한 傳記를 附記하였다. 전기의 내용은 이들의 간략한 履歷 및 저술을 소개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朴仁範, 元傑, 巨仁, 金雲卿, 金垂訓 등이 겨우 글이 전하는 것이 있으나 역사에서 행적을 잃었으므로 전기를 세우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 가운데 巨仁에 관한 일화가 신라본기 진성왕 2년 2월 기록에 전하지만, 『삼국사기』 찬자는 열전에 이 기록에 전하는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삼국사기』 찬자가 신라 인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라본기에 전하는 기록을 전거로 삼아 열전에 立傳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였음을 이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라 인물의 경우, 그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를 세우지 않았음을 새삼 상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최치원열전은 4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최치원의 字와 出身 部, 성품 및 渡唐留學과 實貢科 급제, 그 이후의 履歷과 행적을 소개한 부분이다. 「崇福寺碑」에서 최치원의 아버지 이름이 肩逸이라고 밝혔다. 『삼국사기』 찬자는 「崇福寺碑」를 보지 않아 아버지의 이름을 모른다고 서술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첫 번째 단락에서 893년 이후에 최치원이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나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최치원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 최치원이 지은 「上太師侍中狀」의 전문을 인용하여 제시한 점이 유의된다.³⁵⁾ 『삼국사기』 찬자는 太師侍中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현재 895년 8월 이후에 최치원이 「上太師侍中狀」을 찬술하였고, 태사시중은 李克用이었음이 확인되었다.³⁶⁾ 『삼국사기』 찬자가 「上太師侍中狀」이 실린 전승자료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것이 실린 문헌을 考究할 수 없다. 신라본기 진성왕 8년(894) 2월 기록에 최치원이 시무 10여 조를 올리자, 왕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았다고 전하나, 최치원열전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삼국사기』 찬자는 최치원의 행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전승자료를 기초로 하여 첫 번째 단락을 찬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단락은 최치원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悠悠自適하며 생활한 사실과 경주 남산을 비롯하여 그가 遊娛하던 장소, 말년에 海印寺에 숨어 살면서 친형인 승려 賢俊 및 定玄師와 교류하며 생을 마감한 사실 등을 소개한 부분이다. 세 번째 단락은 江東의 시인 羅隱이 최치원이 文才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류한 사실, 최치원과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顧雲과 친하게 지낸 사실 및 고운이 최치원에게 지어 준 송별시를 소개한 내용, 『신당서』 예문지에 전하는 최치원에 관한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 문집 30권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기술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삼국사기』 찬자는 최치원의 글이 중국인들에게도 널리 인정받았음을 강조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네 번째 단락은 최치원이 고려 태조에게 편지를 보내 문안을 드렸다는 사실과 그의 제자들이 개국 초기에 적지 않게 등용된 사실, 그리고 고려 현종이 최치원을 內史승이란

35) 신라본기 진성왕 7년 기록에 ‘遣兵部侍郎金處海 如唐納旌節 沒於海’라고 전하고, 「상태사시중장」에 ‘唐昭宗景福二年 納旌節 使兵部侍郎金處海沒於海’라고 전한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가 신라본기를 찬술할 때에 후자의 기록을 인용하여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6)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429쪽.

관직과 文昌侯라는 시호를 추증한 사실을 언급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삼국사기』 찬자는 최치원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 「上太師侍中狀」, 顧雲이 지은 送別詩, 『신당서』 예문지, 최치원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기술한 전승자료 등을 두루 참조하여 최치원열전을 찬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 열전 가운데 찬자의 편찬 태도와 그 과정을 가장 적실하게 엿볼 수 있는 사례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보고열전은 『삼국사기』 찬자가 杜牧이 지은 張保臯鄭年傳을 인용하여 찬술하였음을 밝힌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보고열전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면, 두목의 『樊川文集』에 실려 있는 張保臯鄭年傳의 기록 일부를 생략하고 인용하면서도 『신당서』 신라전에 전하는 장보고 관련 기록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³⁷⁾ 일부 구절(今謂之莞島)은 찬자 자신이 직접 추가하여 補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찬자는 두목의 『樊川文集』에 실린 장보고정년전이 新羅傳記에 전하는 것과 자못 다르다고 언급하였는데, 『삼국사기』 찬자가 열전을 찬술할 때에 신라본기와 김양열전 등에 전하는 장보고 관련 기록을 의식하면서도 적극 참조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한편 『삼국유사』 권제2 기이제2 신무대왕·염장·궁파조에 염장이 장보고를 살해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고려 중기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한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찬자가 신라본기 기록과 이러한 전승자료를 기초로 하여 열전에 장보고를 立傳하지 않고, 두목의 『변천문집』과 『신당서』 신라전에 전하는 장보고 관련 기록을 토대로 입전한 이유는 중국측의 문헌에 장보고의 義勇이 중국인들에게 널리 칭송받았던 사실이 기술되어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김유신열전의 말미에 기술한 사론에서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기록이 아니었던들 모두 없어져서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최치원열전에서 중국에서 최치원의 명성이 자자했던 사실을 높이 평가한 것처럼, 비록 신라에서 반역자로 인식되어 고려인들에게 잊혀진 인물이었을 지라도 중국측의 문헌에 소개되어 칭송받은 장보고에 관한 전기를 『삼국사기』에 실어 그의 義勇을 후세의 전범으로 삼으려고 의도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삼국사기』 찬자는 설총열전은 金大問의 『鷄林雜傳』, 설총과 그의 아들 薛仲業 관련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찬술하였고, 최치원열전을 찬술할 때에 국내의 최치원 관련 전승자료와 「上太師侍中狀」, 顧雲의 送別詩, 그리고 『新唐書』 藝文志에 전하는 최치원 관련 기록을 두루 참조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張保臯列傳은 杜牧의 『樊川文集』에 전하는 張保臯鄭年傳을 주요 저본으로 삼고, 『신당서』 신라전에 전하는 장보고 관련 기록을 참조하여 찬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사람의 열전을 통해 『삼국사기』 찬자가 국내의 전승자료가 아니라 중국 문헌이나 사서에 신라 인물에 관한 기록이나 전기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열전의 찬술에 적극 반영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편찬태도는 을지문덕, 흑지상지와 같은 고구려·백제 인물을 열전에 입전한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다. 한편 금석문에 열전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들은 그와 같은 자료를 적극 취합하여 열전

37) 예를 들어 장보고열전에 전하는 ‘淸海新羅海路之要’, ‘若與保臯所負何如’, 宋祁曰 嗟乎 不以怨毒相甚 而先國家之憂 晉有祁奚 唐有汾陽·保臯 孰謂夷無人哉’ 등은 『신당서』 신라전에서 인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보고열전의 전거자료와 立傳의 목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재운, 앞의 논문, 2004가 참조된다.

의 찬술에 활용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문헌에 전하는 전승자료를 중심으로 열전을 찬술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유의된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 본문에서 신라 인물 열전의 원전과 찬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찬자는 上古期의 인물인 居道の 傳記를 金大問이 지은 『鷄林雜傳』에 전하는 기록을 전거로 삼아 찬술하였고, 이사부열전 전체 혹은 일부 역시 그 원전이 『계림잡전』에 전하는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百結先生列傳의 원전은 『樂本』에 전하는 기록이거나 여기에 전하는 기록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정리한 전승자료였다고 짐작된다. 『삼국사기』 찬자는 『國史』의 찬자가 참조한 전승자료와 계통이 다른 별도의 전승자료를 전거로 삼아 昔于老·勿稽子·朴堤上列傳을 찬술하였는데, 이 가운데 석우로·박계상열전의 원전은 중대 이후에 새롭게 정리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삼국유사』 찬자 一然은 『삼국사기』 본기와 열전의 찬자가 활용한 저본자료와 계통이 다르면서 후대에 附會된 내용이 많이 추가된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紀異篇 奈勿王 金堤上條 및 避隱篇 勿稽子條를 찬술하였음이 유의된다.

중고기 인물의 열전 가운데 斯多舍列傳의 원전은 金大問이 지은 『花郎世記』였고, 丕寧子列傳의 원전은 金庾信行錄이었으며, 이외의 중고기 신라 인물의 열전은 개별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劔君列傳의 원전은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竹竹과 奚論列傳의 원전은 중대 이후에 정리되었음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신라본기 중고기의 기록을 찬술하면서 居柒夫·貴山·訥催·丕寧子·竹竹·金庾信列傳이나 또는 이것들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참조하였음에 반하여, 사다함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인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사실과 대비되어 주목된다.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구삼국사』 신라 기록을 주요 전거로 삼아 신라본기를 찬술하면서, 중고기 인물 열전이나 이들 원전에 전하는 기록을 축약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침입하였는데, 이것은 신라본기와 열전의 기록이 서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배려로 이해된다. 이밖에 열전 또는 이것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이 신라본기의 기록과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細注로서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하게 附記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삼국사기』 찬자가 열전을 찬술할 때에 신라본기에 전하는 기록을 적극 참조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 찬자는 중·하대 인물 열전 가운데 설총열전은 金大問의 『鷄林雜傳』, 설총과 그의 아들 薛仲業 관련 전승자료를 참조하여 찬술하였고, 최치원열전을 찬술할 때에 국내의 최치원 관련 전승자료와 「上太師侍中狀」, 顧雲의 送別詩, 그리고 『新唐書』 藝文志에 전하는 최치원 관련 기록을 두루 참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張保臯列傳은 杜牧의 『樊川文集』에 전하는 張保臯年傳을 주요 저본으로 삼고, 『신당서』

신라전에 전하는 장보고 관련 기록을 참조하여 찬술하였으며, 官昌과 金歆運列傳의 원전은 『화랑세기』에 전하는 기록이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한편 金令胤列傳의 경우는 『화랑세기』 또는 이것과 김영운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가 원전이었고, 강수를 비롯한 나머지 중·하대 인물 열전의 원전은 개별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가운데 김인문과 김양열전의 원전은 行狀의 성격을 지닌 전승자료였음이 주목된다.

신라본기와 중·하대 인물 열전에 전하는 기록을 상호 비교한 결과, 『삼국사기』 본기의 찬자는 신라본기 기록의 원전에 전하는 기록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열전이나 이들 원전의 기록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 신라본기를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열전의 찬자는 비록 신라본기에 어떤 인물의 행적이 적지 않게 전하더라도 고구려의 인물처럼 신라본기의 기록을 저본으로 하여 열전에 입전한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는 개별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전에 입전하였음을 엿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는 김유신과 김인문열전을 찬술할 때에 이들과 관련된 전승자료에 전하는 내용을 刪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 이외의 인물의 열전을 찬술하면서 원전의 내용을 刪略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밖에 금석문에 열전에 기록된 인물과 관련되는 내용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들은 이와 같은 자료를 적극 취합하여 열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이 문헌에 전하는 전승자료를 중심으로 열전을 찬술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이상이 본고에서 살핀 핵심 내용이다. 『삼국사기』 열전의 찬자가 신라본기나 이것의 원전 기록을 참조하지 않고, 개별 인물의 행적을 정리한 전승자료, 鷄林雜傳, 花郎世記, 金庾信行錄, 古記類 등을 참조하여 신라 인물의 열전을 찬술함으로써, 『삼국사기』를 통해 신라 인물 및 신라 역사에 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관한 다양한 계통의 전승자료가 존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찬자들이 『구삼국사』를 저본자료로 삼아 신라본기를 찬술하고, 열전을 찬술할 때에는 『구삼국사』 이외의 전승자료를 활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고려 중기까지 신라 인물과 역사에 관한 자료가 비교적 많이 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국사기』 찬자가 나름 『삼국사기』에 되도록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유의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사부와 거칠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본기에 열전에 입전된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다수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열전을 찬술함으로써 각 인물의 생애와 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한 傳記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나름 비판을 받을 소지도 없지 않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문헌자료 이외에 금석문과 고기류 등을 폭넓게 활용하지 않아 보다 많은 정보를 열전에 담지 못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삼국사기』 찬자들이 불교 승려를 열전에 入傳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삼국사기』 찬자들이 불교에 대해 크게 배려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유의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신라 인물 열전의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개별 인물 열전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그것의 원전이나 편찬과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피기가 쉽지 않았다. 차후에 개별 인물 열전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라 인물 열전에 전하는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삼국유사』와 기타 다른 문헌자료에도 전하지만, 이것들과 열전의 기록을 비교 검토하여, 개별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전승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탐구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았다. 향후 이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별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전승자료에 대한 지견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高寬敏, 「三國史記新羅本紀の國內原典」, 『古代文化』 46: 9・10, 1994.
 高寬敏, 「『三國史記』の一原典としての『金庾信行錄』」, 『三國史記の原典的研究』, 雄山閣, 1996.
 김복순, 「신라의 유학자-『삼국사기』 유학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2004.
 김창석, 「신라 현재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윤재운, 「『삼국사기』 장보고열전에 보이는 장보고상」,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2004.
 이강래, 「『삼국사기』 열전의 자료계통」,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이강래, 『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2007.
 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시민강좌』 1, 일조각, 1987.
 이홍직, 「삼국사기 고구려인전의 검토」,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전덕재,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목간과 문자』 5, 2010.
 전덕재, 「물계자의 피은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1, 2010.
 전덕재,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전덕재,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020.
 황형주, 「『삼국사기·열전』 찬술과정의 연구-자료적 원천의 탐색-」,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이 논문은 2020년 8월 28일에 투고되어,
 2020년 9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10월 8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0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l Texts and Compilation of Silla Figures's Biography in Samguksagi

Jeon, Deogjae**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al texts and compilation of Silla figures's Biography(Yeoljeon) in Samguksagi. The Geodo-Yeoljeon and entire or part of the records of Isabu-Yeoljeon were originally from Gyelimjabjeon(鷄林雜傳), while the records of Baekgyeolseonsaeng-Yeoljeon seem to had been newly compiled based on the records of Akbon(樂本). Further, the biographies of Seokuro · Mulgyeoja · Park Jesang, who lived in the Early Ancient Period(上古期), were based on the sources of roots different from ones that the compiler of Guksa(國史) referred to. The original texts of Sadaham · Gwanchang · Kimheumoon-Yeoljeon were originally from Hwarangsegi(花郎世記), Binnyeongja-Yeoljeon from Kimyusin-Haengrok(金庾信行錄), and the biographies of other people, lived in the Middle Ancient Period, originated from the passed down materials that compiled each person's life. While the authors of Samguksagi Bongi wrote the book by summarizing or making excerpts from these original texts or biographies, they did not actively utilize the records from Sillabongi(新羅本紀) when they were compiling Yeoljeon. The authors of Samguksagi Biography wrote Seolchong-Yeoljeon by referring to Kim Daemun's Gyelimjabjeon along with the passed on materials about Seol Chong and his son Seol Jungeop. When they were compiling Choichiwon-Yeoljeon, they utili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cords related to Choi Chiwon like Sangtaesasijungjang(上太師侍中狀), or Yemunji(藝文志) in Xintangshu. The author of Samguksagi Biography wrote the Jangbogo-Yeoljeon from Beoncheonmunjip(樊川文集) as its original texts, and also referred to the records related to Jang Bogo in Xintangshu. In addition, Kangsoo-Yeoljeon and the rest of the characters, who lived in the Mid-Later Silla Period, were written with passed down records compiling each person's life as its original tex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riginal texts of Kiminmun · Kimyang-Yeoljeon were passed down records which had features of haengjang(行狀: records of a dead person's life). In writing Sillabongi the authors of Samguksagi barely had not been utilized Yeoljeon of characters lived in the Mid-Later Silla Period or its

**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of Dankook University

original texts. Further, even when a person's life was described in detail in Sillabongi, the authors of Biography did not register the person in Yeoljeon, based on the records of Sillabongi.

[Key Words] Gyelimjabjeon, Hwarangsegi, Original texts, Editors of Samguksagi Biography(Yeoljeon), Sillabongi, Silla figures's Biography(Yeoljeon) in Samguksagi

